

월/요/광/장

이원규



무더운 여름이 잦은 비와 함께 서서히 물러나고 밤이면 선선한 기운이 창문을 넘어온다. 바야흐로 가을이 오고 있다.

과정으로서의 길을 생각하고, 길이 집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채 집착과 욕망으로서의 집만 존재할 때 오히려 우리는 자주 길을 잃게 되는 것이다.

집 밖에 그 어디론가 향하는 길이 있으리라 믿었지만 그게 아니었다. 모든 길이 곧 집이었다. 집과 길은 자웅동체의 한 몸이었다.

더욱 혼돈의 길이 아닌가. 옳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결과와 목표만을 추구하며 살다 보면 그 화사해 보이던 결과의 꽃마저 바로 죽음의 조화일 뿐이다.

우리는 모두 이승의 나그네이기에 발바닥 밑이 모두 안방 구들장이요, 잘 모르는 마을 임구의 당산나무 그늘도 바로 집이요, 숲 속의 잘 모르는 무덤도 집이다.

하러 이 가을에 벌초를 하고 성묘를 하는 것 아닌가. 벌초와 성묘는 감사와 반성과 참회의 한 양식이다. 이 세상을 물려준 조상에 대한 감사의 큰절이자 무언가 잘 못 살았던 날들에 대한 참회요, 새로운 다짐의 소중함의 의식이요.

우리는 모두 안방 구들장이요, 잘 모르는 마을 임구의 당산나무 그늘도 바로 집이요, 숲 속의 잘 모르는 무덤도 집이다. 나그네는 가야할 길이 따로 없고 이 세상 어디나 다만 늘 도착하는 집만 존재하는 것이다.

아파트 난간을 넘어 허공으로 한 발짝 내딛는 남과 여가 있으며, 농약을 마시거나 칼을 휘두르는 이들이 있다. 이처럼 인생은 고해라지만 모두들 집과 무덤 사이에서 문득 길을 잃었기 때문이다.

집 밖에 그 어디론가 향하는 길이 있으리라 믿었지만 그게 바로 길이였다. 우리는 모두 이승의 나그네이기에 발바닥 밑이 모두 안방 구들장이요, 잘 모르는 마을 임구의 당산나무 그늘도 바로 집이요, 숲 속의 잘 모르는 무덤도 집이다. 나그네는 가야할 길이 따로 없고 이 세상 어디나 다만 늘 도착하는 집만 존재하는 것이다.

가을 단상, 길과 집과 무덤

할 때 우리는 소중했던 이들의 무덤을 찾아간다. 적당히 슬프고 적당히 힘들 때는 무덤을 찾지 않는다. 왜 그럴까.

나 쓸쓸하거나 외롭거나 절망적일 때 가장 가까운 누군가의 무덤을 찾아가려고 권하고 싶다. 친족이나 친구가 아닌 잘 모르는 이의 무덤이라도 좋다.

‘당신은 살아생전에 문득 삶이 파랗해질 때 어찌했는지, 슬프고 외로울 때나 절망적일 때는 또 어찌했는지. 행여 지금 무덤 속에서 후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고 또 물으며 광경 읊어도 좋다.

우리가 죽어 마침내 무덤을 집으로 삼을 때 후세들에게 물려줄 ‘21세기 타임캡슐’은 지구를 덮어줄 쓰레기 매립장이나 무덤뿐만이 아니다.

(시인·지리산학교 대표교사)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조칼럼

U대회 수영장 둘러싼 단체장의 책무



서지훈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 수영장 임지선 등의 문제로 광주 광산구와 남구간의 갈등이 우리 지역 지방언론의 주요기사로 다루어지고 있다.

요청 등을 이유로 내세우면서 서로 자기 자치구 안에 수영장이 건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이면에서는 최근 우리 지역 전설과 밍 집값이 오름 마당에, 수영장을 유치하게 되면 더욱더 집값 등이 오르리라는 자치구 주민들의 열망과 이를 무시할 수 없는 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갈등을 더욱더 부추기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는 의뢰인의 생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느낄 때면 난감한 것이 현실이다.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예초에 선임 과정에서 충분히 사실관계 등에 대해서 판단하지 못하고 선임한 변호사의 잘못이 첫 번째일 것이다.

위 두 자치구간의 갈등이 발생한 것은 처음 행정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시에 1차적인 책임이 있을 것이다.

는 그만한 손실보상 등을 해 주어야 할 것이 된다.

위 갈등이 조장된 것은 자치구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 두 자치구를 장악하지 않는 한 갈등이 해소되길 쉽지 않아 보인다.

무상급식 문제로 눈물의 기자회견을 하면서 주민투표까지 간 서울시장의 본인이 공인한 대로 시장직을 물러남으로써 책임을 진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두 자치구 간의 갈등이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행정은 하는데 있어서 신뢰보호와 공익은 항상 충돌하기 마련이다. 광주시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고

복수노조 갈등 해소, 노동위 역할 중요하다



이승호

5·16군사정변 직후인 1963년 개정된 노조법에 따라 복수노조가 금지됐다가 약 50여 년이 지난 올해 7월1일부터 사업장 단위에 복수노조가 허용됐다.

준에 맞는 선진적인 노사관계 제도를 갖추게 됐다.

복수노조 제도의 주요내용은 사업장 단위에 복수노조의 설립은 허용하되 교섭창구는 단일화한 것이다.

용자가 소수노조나 그 조합원의 이익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할 경우 시정명령을 하는 등 복수노조와 관련된 핵심적인 부분을 담담하고 있다.

복수노조 시행으로 산업현장에서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노동 집행부가 다수 근로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독선적으로 운영하거나 어용노조·휴먼노조가 있으면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없었다.

하지만 사업장 단위에 복수노조가 허용됨으로써 기존 노조는 더욱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게 됐다.

무엇보다 사용자들과 결탁해 운영하거나 다수 근로자의 이익을 무시한 채 투쟁 일변도로 나갈 수 없게 됐다.

따라서 복수노조 허용은 노동조합 간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조합원이 중심이 되는 민주적 노조활동이 활성화되고, 경영 측면에서도 기업의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이 한층 높아지는 등 ‘경쟁과 책임’의 성숙된 노사관계로 진입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수노조 시행이 이제 두 달째로 접어들다. 아직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면 사업장 복수노조 허용이 노사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예상은 아직 시기상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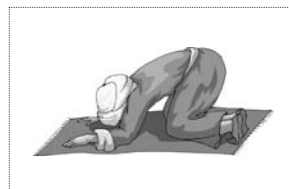
따라서 노동위원회는 노사의 불만과 불안을 없애고 산업현장에서 복수노조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결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과장)

無 等 鼓

이슬람 최대의 종교행사는 라마단(Ramadan)이다. 천사 가브리엘이 무함마드에게 코란을 가르친 신성한 달(聖月)로, 이슬람력(曆)으로 9월이다.

피의 라마단



한달 가까이 이어지는 라마단 기간 금욕적 단식은 무슬림이 지켜야 할 5대 의무 중 하나다.

다. 주요 도시에서 연일 시위가 벌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태도가 너무 강경해 혁명이 성공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담배와 성관계, 향수를 섭취하는 등 불순행위를 하면 화를 내거나 부정할 것을 보는 것도 제한된다.

다행인 것은 리비아 시민군이 치열한 교전 끝에 수도 트리폴리를 장악, 42년간 수만명까지 멀리해야 하며 화를 내거나 부정할 것을 보는 것도 제한된다.

다행인 것은 리비아 시민군이 치열한 교전 끝에 수도 트리폴리를 장악, 42년간 수만명까지 멀리해야 하며 화를 내거나 부정할 것을 보는 것도 제한된다.

다행인 것은 리비아 시민군이 치열한 교전 끝에 수도 트리폴리를 장악, 42년간 수만명까지 멀리해야 하며 화를 내거나 부정할 것을 보는 것도 제한된다.

의사·의료장비 없는 엉터리 건강검진 강력 단속해야

예전과 다르게 사람들이 건강을 사전에 챙기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시술을 조절, 그리고 병원에서 하는 위암 검사 등 정기 건강 검진이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건강검진을 받는 데 의사가 의료 장비 없이 건강검진을 해준다면 누가 믿을까.

이제는 우리가 운전할 때 스스로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어 운전’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병에 미리 대처할 경우 국가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건강검진센터에서는 의사 대신 임상병리사나 간호사, 치과위생사가 검진한다고 한다. 특히나 직장이나 지역단위로 시행하는 출장검진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고 한다.

이제는 우리가 운전할 때 스스로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어 운전’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병에 미리 대처할 경우 국가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병이 발생해 병원을 찾을 경우 수술비 등 치료비로 건강보험료 손실이 크지만 미리 건강검진을 받아 병을 예방하면 건강보험료 제정이 그만큼 튼튼히 지기 때문이다.

건강검진센터에서는 의사 대신 임상병리사나 간호사, 치과위생사가 검진한다고 한다. 특히나 직장이나 지역단위로 시행하는 출장검진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고 한다. 면허도 없는 업자가 검진기관과 보험금어를 나눠 먹기로 계약을 맺고 형식적인 검진을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서 광주일보 www.kwangju.co.kr

Table with newspaper subscription information, including contact numbers and prices for various subscription options.